



보도시점 2025. 10. 27.(월) 14:30 배포 2025. 10. 27.(월) 13:00

구윤철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 한-IDB 협력 강화를 위한 「한-IDB 패키지」 LOI 체결
- 한국 AI 협력 허브 설립, 한국인 채용 확대 등을 위한 협력 계획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7(월)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일랑 고우드파잉(Ilan Goldfing)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먼저, 고우드파잉 총재는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축하하며, 그간 중남미 지역 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남미가 한국과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가 향후 20년 협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한-IDB 패키지(Korea-IDB Package)」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 동 의향서에는 한·중남미 공동의 발전을 위해 AI·핵심광물·에너지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오늘 서명된 의향서를 바탕으로, 양측은 한국에 AI 협력 허브(Korea AI Hub)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AI·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AI 협력 허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IDB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 인력의 IDB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IDB에 유능한 한국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채용설명회뿐만 아니라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IDB 한국어 웹사이트 등 한국 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총재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기구 내에서 한국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 연세대('25.9월), 고려대('25.10월)와 글로벌 인턴십 협약 체결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장 곽소희 (044-215-8720)
	국제기구과	담당자	사무관 김유경 (kyu1019@korea.kr)

대한민국
지속가능
브리핑



참고 1

면담자 인적사항

□ 성명 : Ilan Goldfajn
(일랑 고우드파잉)

□ 국적 : 브라질 (66년생, 58세)

□ 학력

- MIT 경제학 박사
- 리우데자네이루 카톨릭 대학교 경제학 석사
- 리우데자네이루 연방 대학교 경제학 학사



□ 주요경력

- 2022.1~2022.10 IMF 서반구 국장
- 2016.5~2019.2 브라질 중앙은행장
- 2019.12~2021.12 브라질 크레디트 스위스(IB) 자문위원회 의장
- 1996~ IMF, 중앙은행, 시중은행 및 씽크탱크 근무

※ 역대 IDB 총재

- 1960~1971년 Felipe Herrera (칠레)
- 1971~1988년 Antonio Ortiz Mena (멕시코)
- 1988~2005년 Enrique V. Iglesias (우루과이)
- 2005~2020년 Luis A. Moreno (콜롬비아)
- 2020~2022년 Mauricio Claver-Carone (미국)

참고 2

미주개발은행(IDB) 개요

- 목적 : 중남미 지역 개도국 경제발전 지원
- 설립연도 : 1959년
- 소재지 : 미국 워싱턴 D.C.
-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 1,709억불
- 가맹국 : 총 48개국(역내 28개국, 역외 20개국)
 - 투표권 : 역내국 50.75%, 역외국 49.25%(미국 30.006%, 한국 0.004%)
- 조직·인력 : 총회, 이사회(이사 14*, 대리이사 14); 총재(1)·부총재(3)
 - * 미국 임명 1명, 미국 외 역내 회원국 선출 10명, 역외 회원국 선출 3명
- 주요국 투표권 비중('24. 말 기준)

역내		역외	
회원국	투표권(%)	회원국	투표권(%)
브라질	11.354	미국	30.006
아르헨티나	11.354	일본	5.001
멕시코	7.299	캐나다	4.014
베네수엘라	3.403	이탈리아	1.965
칠레	3.119	스페인	1.965
콜롬비아	3.119	독일	1.896
페루	1.521	프랑스	1.896
우루과이	1.219	영국	0.964
볼리비아	0.913	중국	0.004
기타(17개국)	8.294	한국	0.004
		기타(12개국)	5.18
계	50.753	계	49.247